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영선** · 정익중***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및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시군구별 지역사회 자료(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범죄율, 유해시설 수)를 결합하여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에 따라 청소년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빈곤 수준과 유해환경 수준은 중비행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빈곤 수준과 유해환경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비행 행동이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이 증가할 때 중비행 심각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 범죄는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은 지위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위비행의 경우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일탈 행동일 수 있어 지역사회 환경보다는 가족의 영향이 클 수 있는 반면, 중비행의 경우 외부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지위비행, 중비행, 지역사회 빈곤, 지역사회 범죄, 유해환경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 이화여자대학교 BK21 Plus 박사후 과정 연구원, youngsunjoo86@g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ichung@ewha.ac.kr

I. 문제 제기

청소년은 가정, 또래집단, 학교 뿐 아니라 더 넓은 환경적 요인인 지역사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가정 밖의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13)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발달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 및 빈곤 수준이 높은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교육 환경 및 사회적 자원도 열악하여 청소년을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하지도 못하면서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Jencks & Mayer, 1990).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체 소년 범죄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소년범에 의한 흉악범죄와 폭력범죄인 강력범죄는 전년 대비 각각 0.4%, 3.3% 증가하여 청소년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진혜민, 배성우, 2012),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김청송, 2007; 민수홍, 2006), 가족(김영희, 안상미, 2007; 박은하, 권세원, 2010;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조윤주, 강란혜, 2010), 또래집단(김경, 2010; 김세원, 이봉주, 2010; 노성호, 2006; 윤옥경, 2008) 등 미시적인 수준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관계를 맺고, 자원을 주고 받는 중요한 장소로서 기능하며, 청소년은 가정, 또래집단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김세원, 2009)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 연구에서는 꾸준히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Church, Jagers & Taylor, 2012; Leventhal & Brooks-Gunn, 2000; Sampson, Morenoff & Gannon-Rowley, 2002),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들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측정하였기 때문에(김재엽, 최선아, 임지혜, 2015; 김창익, 윤우석, 2013; 윤우석, 2014; 현다경, 김형모, 2018),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실제 지역사회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Brooks-Gunn, Duncan, Klebanov & Sealander, 1993). 따라서 보다 더 객관적인 지역사회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활용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응답에 기반했기 때문에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multi-level)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분석방법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통해 보다 더 객관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어떠한 특성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층구조 자료를 고려한 위계선형모형은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지역사회 환경과 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인 수준의 변인들이 어떻게 환경적 변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다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족 내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비행 행동의 스펙트럼은 넓고, 담배, 음주 등 경비행을 의미하는 지위비행의 경우 사춘기 때 경험할 수 있는 일탈적인 행동일 수 있는 반면 절도, 폭력 등 중비행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 속에서 만성적으로 중비행 행동이 지속될 수 있다. 이처럼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심각도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구분하여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김동기, 홍세희(2007)에 의하면, 최초 가출행동을 할 확률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부터는 가출행동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

학년 시기는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오정수, 정익중, 2017) 흔히 말하는 “중 2병”을 가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지역사회 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되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지역별로 다른 범죄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으로, 범죄 발생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회의 특성에서 바라보는 범죄학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지역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연구에서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사회해체이론을 발전시킨 Shaw와 McKay(1942)는 범죄와 비행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빈곤율과 인구이동률이 높았으며,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해체와 범죄, 비행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하여 범죄와 비행의 지역별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해체된 지역사회(disorganized neighborhood)는 무질서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와 비행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하지만 사회해체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도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들마다 연구주제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해체 및 무질서를 측정하고 있다(Sampson & Groves, 1989). 예를 들어, 지역사회 폭력 수준의 경우 Shaw와 McKay(1942)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해체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폭력 수준이 사회해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arding, 2008; Venkatesh, 2000). 지역사회 폭력 및 범죄 수준이 높으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감시하는 데에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Harding, 2008). 또한 많은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 중

유해환경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김종오, 성용은, 2006; 정하성,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지역사회 지표들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지역사회 빈곤율과 범죄율, 또 유해환경 수준을 지역사회 해체 및 무질서를 나타내는 척도로 보고, 이러한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

지역사회 빈곤은 사회해체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지역사회 지표이다. 지역사회 빈곤은 빈곤층 비율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연구자에 따라 지역별 범죄율, 지역 주민들의 학력 수준 및 직업, 지역의 중위소득, 실업률 등 다양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빈곤을 측정하기도 한다(Harding, 2008; Wodtke, Harding & Elwert,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비율로 지역빈곤율을 측정하고 있다(김세원, 2009; 김진석, 유비, 장희선, 김경희, 김기현, 2018; 김창익, 윤우석, 2013; 정자유, 2012).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빈곤의 집중(poverty concentration)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빈곤으로 인한 범죄, 유해환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밝힌 국외 연구에서는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꾸준히 보고하였다(Church et al., 2012; Jencks & Mayer, 1990). 빈곤한 지역사회에는 규범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 폭력에 노출되어 모방이나 모델링으로 비행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고(Sampson et al., 2002; Zimmerman & Messner, 2011),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비행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Church et al., 2012).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대표적인 순수실험 조사설계 연구로 미국의 Moving to Opportunity program(MTO)이 있는데, 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의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바우처(Section 8)를 제공하여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집단, 빈곤 수준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으

로 이주하는 집단, 이주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한 청소년의 경우 비행행동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서 그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Kling, Leibman & Katz, 2007; Ludwig et al., 2013). 그 이유는 빈곤율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여자 청소년이 안전 효과를 더 크게 느끼고 범죄 공포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riggs, Popkin & Goering, 2010). 또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더 이른 아동기에 빈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청소년기보다 지역사회 이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Hendren & Katz 2016). 따라서 지역사회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이른 시기에 빈곤 수준이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Chetty et al., 2016).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드물며,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힌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다.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비행 친구 수가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지만, 지역사회 빈곤은 청소년 비행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익, 윤우석, 2013; 정자유, 2012; 윤우석, 2010).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중2병으로 불릴 만큼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을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 비행은 비행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되는 경비행인 지위비행과 법을 위반하는 절도와 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인 중비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 일시적인 일탈행위와 만성적인 범법행위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영향력은 비행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행 행동을 경비행인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지역사회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연구가 부족한바,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 범죄와 청소년 비행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지역의 무질서한 규범과 행동을 학습하여 비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Jencks & Mayer, 1990).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 및 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적응 문제, 학교 폭력 피해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문성호, 2000; 이지현, 2016).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와 폭력 수준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폭행, 절도 등 불량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많은지, 폭행과 절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는지 등 주관적인 인식 차원에서 지역사회 폭력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개인이 인지한 주관적인 환경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을 잘 반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범죄가 청소년 비행에 실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범죄를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로는 김세원(2009)이 있는데, 폭력범죄 발생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범죄를 측정한 결과, 지역사회 폭력범죄율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하였다. 지역의 범죄와 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규범적인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청소년 비행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최윤정, 이시연, 2006)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지역사회 빈곤과 범죄에 비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일탈,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로서,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과 같은 유해시설에서 청소년이 일탈 행위를 할 수 있고, 유해약물과 유해매체에 접촉하게 되어 비행행동 및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김종오, 성용은, 2006). 특히 청소년기에는 주위 환경에 민감하고 유혹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이명선, 2001),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지역사회 유해 환경에 주목하였다. 정하성(2006)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비디오방, 특수목욕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청소년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유해업소의 수가 증가할수록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김종오와 성용은(2006)의 연구 또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 유해행위와 근접할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문조, 윤옥경(2001)은 가정화목도와 학교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교를 중퇴한 친구와 교류가 증가하여, 유흥업소 접촉이 늘어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을 밝힌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사춘기의 정점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구분하여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유해 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이 높아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05개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총 3,227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 기준 중학교 2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2011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2014년 기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를 통합하여 청소년 비행 및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중1패널, 초4패널을 구분하는 패널 유형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적 차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표본으로 하며, 이들을 둘러싼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매년 추적 조사를 하였다.

지역사회 환경은 통계청의 시군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빈곤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시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사회 범죄 수준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범죄율을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별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 빈곤, 범죄 및 유해환경 수준은 청소년 자료 시점과 동일하게 2011년과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 자료의 시군구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지역코드를 결합(merge)하여 분석하였다.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이다. 먼저, 지위비행 유무는 행동경험 유무 변수를 이용하여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행동 중 하나라도 했을 경우 1,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중비행 유무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뺨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세 개의 문항 중 하나의 행동이라도 했을 경우 1, 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위비행 및 중비행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비행 행동의 횟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표준화 점수에는 마이너스 점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비행의 개념과 일치하도록 0-3점까지 재척도화(rescaling)하여 분석하였다(정익중, 2009a). 비행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청소년은 0점, 최대로 경험한 청소년은 3점을 얻게 되어 0-3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통계청의 시군구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을 측정하였다.

(1) 지역사회 빈곤

지역사회 빈곤은 보건복지부의 시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전체 거주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계산하여 구성하였다. 통계적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분석시 표준화한 점수(Z-score)를 이용하였다.

(2) 지역사회 범죄

지역사회 범죄는 대검찰청의 시군구별 살인을 제외한 폭행, 절도, 강도 등 형법 범죄 발생 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전체 거주 인구 대비 범죄율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빈곤과 동일하게 분석시 표준화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3) 지역사회 유해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행정안전부 자료의 시군구별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수를 인구 1000명 당 개수로 계산하여, 표준화한 수치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이 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의 성별 차이에 대해 보고하여(이성식, 2007; 정익중, 2005) 성별을 통제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보고된 가구 빈곤 수준 및 가족 해체(정익중, 2009a)와 학대, 방임,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이명진 외, 2007; 이상균, 2012; 조운주, 강란혜, 2010) 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모두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 시 1수준(개인 수준)으로 포함하였다. 청소년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측정하였다. 빈곤 여부는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income-to-need ratio)를 계산하여, 욕구소득비가 1 이하면 빈곤, 아니면 비빈곤 가구로 조작화하였다(정익중, 2009a). 가족 해체를 보여주는 결혼가족 여부는 청소년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1, 친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학대, 방임, 과잉간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 4개 문항의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 alpha)는 0.85(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 0.84(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방임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등 4개 문항의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0~3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 alpha)는 0.77(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 0.73(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과잉간섭은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등 4개 문항에 대한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간섭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 alpha)는 0.65(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 0.76(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패널(중학교 1학년 패널과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통합하여 조사 시점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패널 유형을 고려하여 통제하였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이면 0,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면 1로 조작화하였다.

표 1

주요 변수 측정 방법

변수		측정방법
지위비행 유무	연간 행동경험 유무	담배, 음주, 가출, 무단결석 중 하나라도 한 경우=1, 하지 않은 경우=0
지위비행 심각도	연간 행동경험 횟수	담배, 음주, 가출, 무단결석 네가지 행동의 횟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점수로 변환 후 합산하여 0-3점으로 재척도화(0점: 비행 행동을 안한 청소년, 3점: 비행 행동을 최대로 한 청소년)
중비행 유무	연간 행동경험 유무	심하게 때리기, 물건 뺏기, 물건 훔치기 중 하나라도 한 경우=1, 하지 않은 경우=0
중비행 심각도	연간 행동경험 횟수	심하게 때리기, 물건 뺏기, 물건 훔치기 세가지 행동의 횟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점수로 변환 후 합산하여 0-3점으로 재척도화
지역사회 빈곤	시군구별 거주인구대비 빈곤율(%)	표준화 점수(Z-score)
지역사회 범죄	시군구별 거주인구대비 범죄율(%)	표준화 점수(Z-score)
지역사회 유해환경	시군구별 인구 천명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표준화 점수(Z-score)
여자		남자=0, 여자=1
빈곤 가구	가구 연간 소득 변수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해 욕구소득비가 1 이하=빈곤 가구, 0=비빈곤 가구
결혼 가정	부모 구성	친부모와 살고 있지 않는 경우=1, 친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 경우=0
학대	학대 4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를 역채점화(1=3, 2=2, 3=1, 4=0)후 합산한 점수(0~12)
방임	방임 4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를 재코딩(1=0, 2=1, 3=2, 4=3) 후 합산한 점수(0~12)
과잉간섭	과잉간섭 4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를 역채점화(1=3, 2=2, 3=1, 4=0)후 합산한 점수(0~12)
패널 더미		중1패널=0, 초4패널=1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개인(청소년)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multi-level)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개인 수준에서 회귀분석을 했을 경우,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될 위험이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개인과 지역의 각 수준의 분산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조건적 평균모형을 사용하여 집단 내 상관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검증하여 위계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성별, 결손가정 여부, 빈곤여부 등)를 1수준(Level 1)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을 2수준(Level 2)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위계선형모형 방정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Level 1: 청소년 비행} = \beta_{0j} + \beta_{ij}x_{ij} + \gamma_{ij}$$

$$\text{Level 2: }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지역사회 빈곤} + \gamma_{02}\text{범죄} + \gamma_{03}\text{유해환경} + \mu_{0j}$$

Level 1 개인 수준 방정식의 β_{0j} 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상수값이고, x_{ij} 는 j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i 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변수(성별, 결손가정, 빈곤여부 등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Level 2 지역의 영향은 β_{0j} 로,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으로 구성된다. γ_{ij} 와 μ_{0j} 는 오차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가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이기 때문에 위계선형모형 중 다층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다음으로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심각도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다층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특성

표 2는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청소년 비행, 지역사회 환경, 통제변수의 평균(표준편차) 또는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빈곤율은 평균 2.87%(SD=1.20)이었으며,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범죄율은 0.49%(SD=0.16),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인구 1000명당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수가 0.10(SD=0.07)이었다.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은 분석 시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Z-score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지위비행은 지위비행 행동을 한 청소년이 8.8%이고, 지위비행의 심각도를 0-3점으로 재척도화한 점수는 평균 0.05(SD=0.18)점이었다. 중비행의 경우, 3.2%의 청소년이 중비행 행동을 하였고, 중비행 심각도는 평균 0.03(SD=0.19)점이었다. 지위비행 및 중비행 심각도의 경우 비행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0의 값을 가진 청소년이 많아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여자 청소년은 48.5%를 차지하였으며, 7.5%가 빈곤 가구, 10.4%가 결혼가정이었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학대 수준은 평균 2.93(SD=2.71), 방임 수준은 평균 3.27(SD=2.25), 과잉간섭 수준은 평균 5.42(SD=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패널을 결합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에 패널 더미도 통제하였는데, 조사 대상자 중 49.4%가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었다.

표 2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M/%	SD	N
지역 수준(Level 2)				105
독립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빈곤율(%)	2.87	1.20	
	지역사회 빈곤 Z-score	0	1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범죄율(%)	0.49	0.16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변수		M/%	SD	N
지역사회 범죄 Z-score		0	1	
지역사회 유해환경(인구 천명당 수)		0.10	0.07	
지역사회 유해환경 Z-score		0	1	
개인 수준(Level 1)				3,227
종속	지위비행 유무	8.8%		
	지위비행 점수 (0-3점)	0.05	0.18	
	중비행 유무	3.2%		
	중비행 점수 (0-3점)	0.03	0.19	
통제	여자	48.5%		
	빈곤 가구	7.5%		
	결혼 가정	10.4%		
	학대	2.93	2.71	
	방임	3.27	2.25	
	과잉간섭	5.42	2.62	
	초4패널 (중1패널=0)	49.4%		

주: 지위비행 점수와 중비행 점수의 중위값은 0으로 이는 비행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0의 값을 가진 청소년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임.

2.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1) 기초모형 검증

먼저, 청소년 비행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적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을 사용하여 기초모형을 검증하였다. 집단내 상관계수(ICC) 검증 결과, 지위비행 유무가 0.005($\chi^2=1.52$, $p<.1$), 중비행 유무가 0.013($\chi^2=7.32$, $p<.01$), 지위비행 심각도가 0.007($\chi^2=2.74$, $p<.05$), 중비행 심각도가 0.008($\chi^2=3.92$, $p<.05$)로 모두 작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ICC가 0.05 이상인 경우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지만, 작은 경우에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을 경우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Heck & Thomas, 2009), 다층자료에서 상위수준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ICC 크기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기도 한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위계선형회귀모델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표 3

기초평균모형 검증

	고정효과		무선효과				ICC
	절편 (γ_{00})		지역 수준(μ_{0j})		개인 수준(γ_{ij})		
	Coef.	SE	SD	Variance Component	SD	Variance Component	
지위비행 유무	0.088	0.006	0.020	0.0004	0.283	0.080	0.005
중비행 유무	0.032	0.004	0.020	0.0004	0.175	0.031	0.013
지위비행 점수	0.046	0.004	0.016	0.0002	0.187	0.035	0.007
중비행 점수	0.028	0.004	0.018	0.0003	0.192	0.037	0.008

2)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

표 4는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이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선형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비행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과 같은 일탈행위인 지위비행과 절도 및 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법행위인 중비행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지위비행 유무의 경우,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비행 유무의 경우,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비행 행동을 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4$, $OR=1.27$, $p<.05$). 또한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비행 행동을 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7$, $OR=1.19$, $p<.1$). 하지만 지역사회 범죄는 중비행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표 4

지역사회 환경이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지위비행 유무		중비행 유무	
	b(SE)	OR	b(SE)	OR
지역사회 빈곤	0.07 (0.07)	1.07	0.24 (0.11) *	1.27
Level 2 지역사회 범죄	-0.03 (0.07)	0.97	-0.04 (0.12)	0.96
지역사회 유해환경	0.08 (0.07)	1.09	0.17 (0.11) +	1.19
여자	-0.57 (0.14) ***	0.56	-1.14 (0.25) ***	0.32
빈곤 가구	0.35 (0.23)	1.42	-0.48 (0.43)	0.62
결손가정	0.43 (0.19) *	1.54	0.75 (0.29) *	2.11
Level 1 학대	0.07 (0.02) **	1.08	0.09 (0.04) *	1.09
방임	0.04 (0.03)	1.04	0.06 (0.04)	1.06
과잉간섭	0.04 (0.03) +	1.04	0.03 (0.04)	1.03
초4패널(패널더미)	-0.27 (0.13) *	0.76	-0.91 (0.25) ***	0.40
χ^2	75.11***		73.36***	
ICC	0.001		0.038	

+ $p<.1$, * $p<.05$, ** $p<.01$, *** $p<.001$

3) 지위비행 및 중비행 심각도

표 5는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이 지위비행과 중비행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선형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비행 행동 점수를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은 지위비행 심각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중비행의 경우 지역사회 유해환경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중비행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0$, $p<.05$). 중비행 유무와는 다르게 지역사회 빈곤은 중비행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중비행 유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범죄는 중비행 심각도에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지역사회 환경이 지위비행 및 중비행 심각도(0-3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지위비행 점수	중비행 점수
		b (SE)	b (SE)
Level 2	지역사회 빈곤	0.004 (0.004)	0.005 (0.004)
	지역사회 범죄	0.000 (0.004)	-0.006 (0.004)
	지역사회 유해환경	0.000 (0.004)	0.010 (0.004) *
Level 1	여자	-0.021 (0.006) **	-0.029 (0.007) ***
	빈곤 가구	0.024 (0.013) +	-0.011 (0.014)
	결혼가정	0.014 (0.012)	0.033 (0.012) **
	학대	0.004 (0.001) **	0.001 (0.001)
	방임	0.002 (0.001)	0.002 (0.002)
	과잉간섭	0.001 (0.001)	0.000 (0.001)
	초4패널(패널 더미)	-0.007 (0.007)	-0.020 (0.007) **
	χ^2	44.17 ***	56.12 ***
ICC		0.007	0.002

+ $p<.1$, * $p<.05$, ** $p<.01$, *** $p<.001$

통제변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가구여부는 지위비행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가정 여부도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 중비행 심각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 지위비행 심각도를 증가시켰으며, 과잉간섭은 지위비행 유무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방임은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과잉간섭은 지위비행 심각도와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패널 더미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 중비행 심각도 수준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외부 환경에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를 활용하여 어떠한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비행 행동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청소년 비행 행동의 스펙트럼은 넓기 때문에 단순 일탈행동일 수 있는 지위비행과 범법 행위인 중비행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패널과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병합하여 조사 시점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중비행 행동을 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유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중비행의 심각도도 증가하였다.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는 무질서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관계가 낮아 사회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Shaw & McKay, 1942; Sampson et al., 1997), 본 연구 결과는 비행 행동의 원인을 지역사회 환경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사회해체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지역사회 범죄 수준은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은 지위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탈행동일 수 있어 지역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가족 해체, 부모의 학대, 부모와의 갈등 등 가족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결혼가정 여부 및 부모의 학대는 지위비행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비행의 경우는 지위비행보다 심각한 수준의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가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가정 밖의 외부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유해환경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중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Moffitt(1993)은 생애주기적인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청소년 비행을 생애주기 만성형(life-course persistent) 비행과 청소년기 중단형(adolescence-limited)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은 아동기 초기 때 비행 행동 조짐을 보이다가 생애주기 동안 만성적으로 점점 더 심한 형태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은 아동기 후거나 청소년기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다 청소년기 중기에 접어들어 비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중비행은 심각한 형태의 비행으로서,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이 될 수 있는 일시적인 지위비행보다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만성형 비행이 될 수 있는 중비행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다양한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정익중, 2009b), 5가지 형태의 상이한 발달궤적-만성형 비행청소년, 저비행 지속형 비행청소년, 중단형 비행청소년, 후발형 비행청소년, 무비행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비행 친구와 어울리는 청소년의 경우 무비행형 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세에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비행 친구와 어울리지 않을 경우 만성형 비행집단에 비해 16세 이후 비행에서 벗어나는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영향은 중비행 가능성이 높은 만성형 비행집단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수준의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은 초기 아동기 때부터 누적되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중비행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일 수 있다. Wodtke et al.(2011)은 빈곤한 지역에 오래 살수록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MTO(Moving to Opportunity) 연구에서도 이른 시기인 아동기에 빈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이주하는 것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

달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하였다(Chetty et al., 2016). MTO 연구 결과는 빈곤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의 빈곤과 비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정익중, 2009a), 한 시점의 빈곤은 무비행형 집단에 비교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빈곤을 경험한 만성빈곤형 집단의 경우 다른 어떤 빈곤 발달단계보다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빈곤지속형 집단의 경우도 만성형 비행집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증가형 집단이나 만성빈곤형 집단에서 16세 이후 비행에서 벗어나는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누적되어 청소년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만성적으로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청소년의 중비행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사회 범죄율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폭력적으로 인식할수록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문성호, 2000; 이지현, 2016). 기존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 지역사회 폭력 수준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범죄율 지표를 활용한 본 연구와는 다르지만,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볼 때에 범죄율 자체가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목격하고 인식하는 것이 비행에 더 영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를 직접 목격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범죄율 자체가 비행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의 범죄 및 폭력 수준이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즉, 범죄는 빈곤과 유해환경에 비해 직접 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가시성(visibility)이나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성은 일탈된 구성원이 규범에 되돌아오게 하는 다른 구성원의 통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주로 관련이 있지만 모방과 모델링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율은 청소년 비행과 동시적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이 지역사회 범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은 청소년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 바, 범죄율 자체보다는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는 지역사회 내의 유해환경 및 빈곤이 비행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먼저, 지역사회 빈곤 및 유해환경 수준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에 사회기반 시설을 늘리고, 지역사회 내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빈곤 수준이 높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개선시킨다면, 간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빈곤한 지역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를 지원하는 것도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MTO(Moving To Opportunity) 사업을 통해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바우처(Section 8 voucher)를 제공하여 빈곤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유한 지역으로 이주한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학업성취도가 상승하고, 비행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소득도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Chetty et al., 2016). 전세와 매매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바우처를 통해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쉬운 대안은 아닐 수 있으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빈곤한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적 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만 늘리는 방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이 점점 낙후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 빈곤이 공공주택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집중화된다면, 청소년 비행행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지원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개입뿐 아니라,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의 매개요인이 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개입도 중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는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여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비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Church et al., 2012), 열악한 지역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교육은 대부분 신청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부모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오정수, 정익중, 2017). 따라서 소외받기 쉬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가정에 직접 찾아가 부모교육과 맞춤형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 빈곤뿐 아니라 유해환경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열악한 지역의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나 주택가 근처에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열악한 지역사회에 경찰 자원을 집중하고, 유해환경이 많은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촉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빈곤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주도 지원하는 양방향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은 누적될 수 있어 보다 더 종단적으로 지역사회에의 거주기간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났다지만, 왜 성별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성별 차이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였기 때문에(이성식, 2007; 정익중, 2005) 후속 연구에서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왜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도 중학교 2학년 학생에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살펴보았지만, 시군구는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반영하기에는 넓은 단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

위를 좁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했지만, 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 (2010).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1-21.
- 김동기, 홍세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대한 검증: 비연속 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18(3), 267-294.
- 김문조, 윤옥경 (2001).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 비행: 분석과 대응. **청소년학연구**, 8(1), 99-116.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 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5.
- 김세원, 이봉주 (2010). 비행행동의 발달궤적 및 영향요. **아동학회지**, 30(5), 103-117.
- 김영희, 안상미 (2007).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 김재엽, 최선아, 임지혜 (2015).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111-135.
- 김종오, 성용은 (2006). 유해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203-225.
- 김진석, 유비, 장희선, 김경희, 김기현 (2018). 지역사회 빈곤과 아동 재학대 관계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3, 79-109. doi:10.24300/jkscw.2018.09.63.79
- 김창익, 윤우석 (2013).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비행친구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5(2), 61-85.
- 김청송 (2007).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87-598. doi:10.17315/kjhp.2007.12.3.007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68, 297-332.
- 문성호 (2000). 지역사회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특성 및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7(1), 125-148.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박은하, 권세원 (2010).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3), 201-231.

- 오정수, 정익중 (2017). **아동복지론(제3판)**. 서울: 학지사.
- 윤옥경 (2008).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연구**, 38, 107-138.
- 윤우석 (2014). 지역사회해체 인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검증: 무질서, 사회유대, 비 공식적 사회통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1), 117-146.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1), 175-202.
- 이명선 (2001).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3), 37-58.
-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2), 9-42.
- 이상균 (2012). 청소년기 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6), 157-185.
- 이성식 (2007). 청소년비행 원인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패널 두 연령집단에 서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6, 265-292.
- 이지현 (2016).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층모형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5, 143-171.
- 정익중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41, 35-76.
- 정익중 (2009a).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113-125.
- 정익중 (2009b).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54, 253-280.
- 정자유 (2012).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 일탈친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89-119.
- 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2), 325-352. doi:10.14816/sky.2016.27.2.325
- 정하성 (2006). 지역사회유해환경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2), 269-284.
- 조운주, 강란혜 (2010).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행친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8), 177-196.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최윤정, 이시연 (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89-113.
- 통계청 (2019). **2019 청소년 통계**. 통계청 사이트 www.kostat.go.kr에서 2019년 8월 1일 인출.
- 현다경, 김형모 (2018).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 및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5(4), 1-26.
- Briggs, X., De, S., Popkin, S. J., & Goering, J. (2010). *Moving to Opportunity: The story of an American experiment to fight ghetto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Duncan, G. J., Klebanov, P. K., & Sealand, N. (1993). Do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2), 353-395. doi:10.1086/230268
- Chetty, R., Hendren, N., & Katz, L. F. (2016).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s on children: New evidence from the Moving to Opportunity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4), 855-902. doi:10.1257/aer.20150572
- Church, W. T., Jagers, J. W., & Taylor, J. K. (2012). Neighborhood, poverty, and negative behavior: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1035-1041. doi: 10.1016/j.childyouth.2012.02.005
- Harding, D. (2008). Neighborhood violence and adolescent friend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2(1), 28-55.
- Heck, R., & Thomas, S. (2009).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s* (2nd ed). New York: Routledge.
- Jencks, C., & Mayer, S.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 Lynn, L., & McGeary, M. (Eds.), *Inner-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pp. 111-186).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13). Associations of neighborhood and family factors with trajectories of physical

- and soci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2, 861-877. doi:10.1007/s10964-012-9832-1
- Kling, J. R., Liebman, J. B., & Katz, L. F. (2007). Experimental analysis of neighborhood effects. *Econometrics*, 75, 83-119. doi:10.1111/j.1468-0262.007.00733.x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09-337. doi:10.1037/0033-2909.126.2.309
- Ludwig, J., Duncan, G. J., Gennetian, L. A., Katz, L. F., Kessler, R. C., Kling, J. R., & Sanbonmatsu, L. (2013). Long-term neighborhood effects on low-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moving to opportun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226-231. doi:10.3386/w18772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doi:10.1037/0033-295x.100.4.674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 443-478. doi:10.1146/annurev.soc.28.110601.141114
- Sampson, R., Rau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doi:10.1126/science.277.5328.918
- Sampson, R., & Groves, W.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doi:10.1086/229068
- Shaw, C., & McKay, H.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nkatesh, S. (2000). *American Project: The rise and fall of a modern ghett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dtke, G., Harding, D., & Elwert, F. (2011). Neighborhood effects in temporal perspective: The impact of long-term exposure to concentrated disadvantage on high school gradu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13-736. doi:10.1177/0003122411420816
- Zimmerman, G. M., & Messner, S. F. (2011). Neighborhood context and nonlinear peer effects on adolescent violent crime. *Criminology*, 49(3), 873-903. doi:10.1111/j.1745-9125.2011.00237.x

ABSTRACT

The effec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s on juvenile delinquency

Joo, Young Sun* · Chung, Ick-Jo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degree to which neighborhood poverty, crime rates, and the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within neighborhoods are associated with the status and serious delinquency among 2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nd neighborhood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and E-local services were combined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a higher poverty rate and a greater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within neighborhoods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more serious delinquency, while neighborhood crime rates are not associated with serious delinquency. Unexpectedly, poverty rates, crime rates, and the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are not associated with status delinquenc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include the policy and programs to prevent serious delinquency by alleviating neighborhood poverty and reducing the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Key Words: status delinquency, serious delinquency, neighborhood poverty,
neighborhood crime, harmful environment

투고일: 2019. 6. 9, 심사일: 2019. 9. 16, 심사완료일: 2019. 9. 24

* Ewha Womans University, BK21 Plus, Postdoctoral Researcher, youngsunjoo86@gmail.com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ichung@ewha.ac.kr